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3>



대립과 갈등을 넘어

부처님께서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탁발로 해결하는 목적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부처님은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다 사위성에 사는 한 청년에게 깨달음의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양은 이 청년에게 받아야겠구나.”

부처님은 발우를 들고서 천천히 청년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청년은 발리서 부처님이 자기 집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신분은 전다라 즉 가장 낮은 계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통치는 일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천한 계급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다가가지도 않고 그림자조차도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인도 사회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자기 집으로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자기 모습이 너무 장파하여 부처님을 피해 다른 골목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어느 사이 그 앞으로 가

행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곧 신통의 힘으로 그를 겹치시 강으로 데려가 악취가 풍기던 몸을 깨끗하게 목욕시켰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어엿한 수행자로 다시 태어난 청년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빈천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다행히 조그만 복이 있어 진리의 맛을 보게 되었다. 만일 지금 스스로 도를 구하지 않으면 뒷날에는 보잘 것없는 범부에 떨어져 지극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하여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께 수행한 끝에 열흘이 못 되어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성자가 되었습니다.(출요경 제19권)

처음 이 경을 읽었을 때 부처님께서 통치기 청년에게 “너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슨 그리 큰 의미가 담겨 있으랴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저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셨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인도불교의 중흥자라 불리는 ‘알베트카르(1891~1956)’에 대한 책을 읽자니 ‘천민인 통치기에게 다가간’ 부처님의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철벽같은 관습개고 통치기 청년에게 다가갔듯

상대를 위해 먼저 다가갈 수는 없는 건가요

서 마주 서셨습니다.

“내가 매고 있는 이 통통에서는 추악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뵈 수 있으랴?”

그는 다시 부처님을 피해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통이 깨지자 순식간에 오물이 땅에 쏟아졌고 청년은 땅 주인의 매서운 질책을 들을까 겁이 나 다시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일부러 너 때문에 왔는데 자꾸 어디로 가려 하나?”

“제 몸이 더러워 감히 부처님을 가까이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 친척도 처자도 없는 외톨이입니다. 게다가 저는 통을 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천하기 그지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대해 부처님께서 이런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라. 너를 제도해 사문을 만들리라.”

청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민에게는 신앙 생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수

불가촉천민 즉 접촉해서 안 되는 천민에 대한 인도 사회의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천년이 지나도록 불가촉천민은 마을의 우물물도 마실 수 없었고, 성진 없는 소리를 듣기라도 하면 그 귀에 찼는 쇠물을 들어부어두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베트카르가 학생시절, 칠판의 문제를 풀러 나갔을 때 교실의 학생들이 모두 난리가 났었습니다. 칠판 뒤에 쌓아둔 자신들의 도시락이 부정 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고생 끝에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었을 때조차도 사환은 음료를 주지 않았고 바닥의 카페트를 밟고 지나가면 부정 탄다고 걸어냈다고 합니다.

아예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불가촉천민. 그들은 다가올 수도, 내 쪽에서 다가가서도 안 되는 더러운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

지금 우리 사회 한 편에서는 갈등과 대립의 행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위보다 더 굳은 관습을 깨고 ‘그’를 위해서 다가간 부처님도 계신데 저들은 왜 ‘상대’를 위해 다가갈려 하지 않는지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 이미형(동국대학교영양학영역) 원장

세번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무공 스님

(가평 청오사 주지)



300여년간 군 포교에 매진한 무공 스님. 스님은 최근 불거진 군관련 사고와 관련해 군인들에게 인화 단결과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중함 자세를 당부했다.

30여년 군포교에 진력

무공(無空) 스님은 1950년 부산 동아대 정치경제학부에 재학 중 학도병으로 징집돼 62년 대위로 전역했다. 그해 범어사에서 전 조계종 종정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범어사와 송광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충청도의 어느 산에서 8년간 토굴정진 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청오사를 중건해 오늘에 이른다. 군불교진흥회 이사를 역임했고 세수 81세인 지금도 매주 군법당을 찾는 등 30여 년간 군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더위가 기승이다. 해마다 맞는 여름이고, 계절의 변화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더위에 지쳐 쉽게 짜증을 내며 산다. 더위를 잊기 위해 시원한 한 줄기 바람 같은, 막걸리 올린 차디찬 우물들 같은 감로법문을 듣고자 경기도 가평 청오사를 찾았다.

곧게 뻗은 경춘가도를 따라 찾아간 청오사는 작은 법당 하나와 요사채 하나,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숙소 하나가 전부인 단촐한 암자다.

청오사에는 올해 여든 한 살의 무공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30여년 넘게 군포교 활동에 매진해 온 스님은 지금도 매달 첫째·셋째 일요일에는 명호부대를, 그 외에는 자매결연 맺은 부대와 초청법회를 여는 군법당을 수시로 찾아가 군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기자가 연신 땀방울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스님은 부채를 손에 쥐어준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것도 마음이 답답 하면 덥고, 마음이 안 답답 하면 안 더운 것 아닙니까?” 자꾸 답다, 답다 하니가 더 더운게지. 다른 일에 빠져 있으면 더위 느낄 새가 있겠는가?”

“건강은 어떠신지요?”

“부처님은 <보왕삼매론>에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병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탐욕이 생기거든요. 병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설사 내 몸에 병이

을 균등하게 나누며 화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국가관을 올바르게 세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자면 자신의 본부사인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본장에 임해서도 ‘필사즉생(必死即生) 필생즉사(必生即死)’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법입니다.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를 지키겠다는 투철한 정신으로 싸운다면 생사를 조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사일행(三思一行), 즉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라고 이릅니다. 세 번 생각하면 세 번 참게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참을 인(忍)’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늘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죠.”

스님이 이렇게 군 포교에 애정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군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큰 몫을 차지한다. 스님은 1950년 부산 동아대 정치경제학부에 재학 중 학도병으로 징집돼 62년 대위로 전역, 출가한 이력을 갖고 있다. 사실 출가자에게 출가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지만, 스님의 출가 이력이 남다르게 눈여겨볼 당시의 이야기를 여쭙는다.

“제가 군에서 살생을 많이 했어요. 매일같이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을 봤지요. 그때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모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대 후 살생원회를 하고 전쟁

죽을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업’ 뿐

인생살이에 과연 내 것이랄게 있나

없다고 해도 유마 거사의 말씀처럼, 중생이 고통 받는 한 출가자도 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병입니다, 병자.”

오랜 세월 군인들과 만나온 스님이기에 최근 잇따른 군 관련 사고에 대해 여쭙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스님을 찾아 뵈 낚은 총기 탈취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이라, 가평까지 이르는 길에도 수없이 검문을 당했던 터였다.

“최근 들어 군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 군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그 어느 때 보다 큼니다. 군대란 곳이 정신적으로 힘든 곳이라 더욱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군인들에게 늘 인화단결과 올바른 국가관 정립, 그리고 삼사일행(三思一行)을 강조합니다. 조직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인화단결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서로 믿고 화합하고 단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군인들에게 늘 불교에서 말하는 ‘육화경(六和敬)’의 가르침을 일러줍니다. 입으로는 다툼이 없이 화합하고, 같이 일하며 도와가며 뜻으로 화합하고, 바른 행실을 함께 닦으며 화합하고, 바른 견해를 함께 깨달며 화합하고, 경제적인 이익

없는 불국정토(佛國淨土)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살상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종교나 문화,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현대인들은 부처님의 비폭력정신과 생명존중사상을 깨우쳐야 합니다.

내편이나 내편이나, 이것이 옳으나 혹은 저것이 옳으나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나와 남을 나누고 적과 동지를 나누고 내 것이나 내 편이 아닌 것은 타도의 대상으로 삼게 만듭니다. 불교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선입이 좋고 악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입도 내가 짓는 것이고 악입도 내가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선인도 한 순간 잘못하면 악업을 짓게 되고, 악인도 한 순간 마음을 바꾸면 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스승이고 악도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존중과 자비사상을 강조하는 스님은 군인들 입수륙 깊고 넓은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교원초빙 및 직원공개채용

1. 교원 초빙

초빙분야	모집인원
내과(감염, 순환기, 내분비) 안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각 0명

2. 직원공개채용

초빙분야	모집인원
행정관리직 기술직 약무직 간호직	각 0명

3. 제출 및 문의

가.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에 한함.

나. 접수기간(서류접수)

- 1)교원 초빙 : 2005년 8월 22일(월) ~ 26일(금)
- 2)직원 채용 : 2005년 8월 1일(월) ~ 5일(금)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후 도착서류 및 미비서류는 반송함

다.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총무팀(우.410-773)

TEL : 031) 961 - 9305, 9307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홈페이지 "www.duih.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화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정말 강한 군인은 자비심에 바탕 한 사람입니다.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깨침을 취아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면 원한이 쌓이고, 그 원한은 다시 복수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푼다면 원한을 살 일도 없고 복수를 부를 일도 없는 진정한 평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을 ‘대영웅(大英雄)’이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상대방을 힘으로 무릎 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진리의 법으로 감화시키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상대방을 감화시키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기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마음 다스리기가 참 어렵지요. 오죽하면 산 속의 적은 100만 명도 토벌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적은 토벌하기 어렵다고 할까요. 자기 마음에 있는 적, 곧 탐진치 삼독(三毒)을 토벌한 사람이 바로 대영웅,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계정해 삼학(三學)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이르셨습니다. 견고한 신심과 원력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이분법적 사고는 싸움 일으키는 주범 선도 악도 모두 스승 좋고 나쁨이 있겠는가

니다. 무명에 싸인 중생은 그저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에 얽매어 스스로 고통을 받고 번뇌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살이는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입니다. 내 소유라고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는 다만 자신이 지은 업만 가져갑니다. 이것만 알면 마음의 적에 끄달려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공 스님은 이어 충청도의 어느 토굴에서 8년간 혼자서 수행할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겨울이면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어 숨조차 쉬기 힘든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스님은 한달 보름간 단식을 하며 정진하는 등 치열한 구도열을 내뿜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것도 못 먹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참고 견디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것을 너무 못해요. 컴퓨터 자판기만 몇 번 두드리면 몸 안 움직이고 땀만 흘려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보니 조금만 힘들어도 못견딤니다. 사이버상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착각하고 있어요.

인터넷 중독이라는 일종의 정신병이자 번뇌 덩어리를 안고 있으니 생각이 깊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이 번뇌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할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바람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생사를 걸고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스님은 이 시대 불교는 무엇보다 포교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만히 산사에 앉아서



“산속의 적은 100만 명도 토벌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는 다스리기 어렵다”는 무공 스님은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바람에 매달린 사람처럼 간절히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자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그동안 30여년 군인들과 어울려 지냈는데, 요즘 되돌아보면 예전에 포교를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엔 법회 때 유식한 말, 경전에 있는 문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야 유식해 보이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덜 풀려서 그랬던 거야. 이제는 최대한 쉬운 말로, 군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요. 알아듣기 쉽게, 그러나 조는 사람도 졸더라도, 불교도 이제 좀 더 대중들의 근기에 맞게 포교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불법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항상 옳은 법을 배우려고 애쓰라고 강조하는 무공 스님. 스님께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여쭙었다.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무명에 싸여 있으니까 생각이 전도패는 겁

니다. 내 마음을 깨달으면 싸움 일이 없고 번뇌할 것도 없습니다. 좀 더 즐겁게 살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끝맺음 벗어나십시오.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세 시간에 걸친 인터뷰가 끝나고 스님의 안내로 절 곳곳을 둘러봤다. 청오사는 한국전쟁 때 폐사됐던 절을 1970년대 중건한 곳으로 곳곳이 손 볼 곳 투성이었지만, 스님은 사찰 불사대신 다른 원(願)을 세우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뜻 맞는 사람들과 군 법당을 많이 건립해 왔는데, 요새 가평 66사단에 군 법당을 하나 지었으면 싶어요. 대지는 있는데 건물 지을 돈이 없어 창고를 개조해서 법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군 법당 하나만 있으면 장병들이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정신수양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연 있는 불자와 만나 군 법당 하나 짓는 것이 내 생애 마지막 불사가 아닐까 싶어요.”

글=여수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로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무상 스님

사람 사람이 각기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을 달리한다. 수행하는 스님 또한 수행하는 방법과 도달하는 길이 다르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보고 느끼는 현상이 매몰되어 옳고 그름과 깊고 얕음을 논하게 된다.

옳고 그름은 만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이야기해도 부족하다. 그 장 단점은 스스로의 변명을 도와준다. 만 가지 조건과 스스로의 변명은 깊이를 모르는 의면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는 시끄럽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하는 일 보다 다른 이의 일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 모두를 따뜻함으로 이끈다. 따뜻함은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포근함은 아늑함으로 긴장과 경계를 녹인다.



무상 스님에게는 다른 이로 하여금 경계와 저항을 느끼지 않게 하는 진솔함이 있다. 그 진솔함에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 점도 포함된다. 설혹 상대가 미운 짓을 했더라도 스스로가 알고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면 스님이 먼저 미안한 얼굴로 상대방을 인심시킨다.

무상 스님은 내내이면 세수로 환갑이 된다. 불지에서 환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만 세연의 길이가 그만큼 길다는 것이다. 나는 스님과 인연이 깊다. 1974년 해인사에서 처음 뵈고부터 해인 강원과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함께 수료했다. 절집 인연으로는 사숙(師宿)님이 된다. 인연도 어찌 이런 인연이 있는가 싶다.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스님께서 먼저 안부를 묻는다. 거꾸로 된 것 같아 죄송스럽게 그지않다.

무상 스님의 은사는 성호 대덕이다. 성호 스님은 무상 스님이 해인강원에서 소임을 볼 때 때 월 무상 스님에게 용돈을 주셨다. 용돈을 준 까닭은 소임을 보면서 공금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정책에서다. 무상 스님은 이 일을 수행과 소임을 보는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스님은 일이 안될 때나 긴장이 풀릴 때에도 남을 탓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돌린다.

스님은 어디를 가도 쉬지를 않는다. 강원도 법흥사에서는 산신각을 짓고 개운사에서 단청복사를 하고, 봉은사 포교실에 있을 때는 포교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프리카 품물전을 열었다.

산이 좋아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고,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를 등정했다.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취장 소임을 볼 때는 중앙승가대학교 학사를 김포로 옮기는 일을 마무리 했다.

무상 스님이 봉은사 주지로 있을 때다. 봉은사 신도들의 숙원불사였던 미륵부처님 점안식도 원만히 끝났고 아של 협상이 남았을 때다. 내가 ‘쉬었다 갑시다’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다. 부처님 제자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부 못하면 불사로 불은(佛恩)과 시은(施恩)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불사는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신도들의 기도 성취를 위한 안장과 평안을 주는 불사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다래현과 법왕루 불사를 했고, 스님들의 수행과 신도들의 요양을 위해 한적한 교외에 봉은사 기도원과 부도전을 만들고자 했다.

진솔함으로 상대 무장해제 주변엔 늘 사람들로 북적

그 후 무상 스님이 송광사 총무소임을 볼 때는 교구 산하 말사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 법원 증인으로 나갔다가, 법정에서 사기꾼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에게 ‘모든 사람이 법 판결 이전에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려운 공부를 이뤄 저런 사기꾼이나 변호하려고 변호사가 되었느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비가 온 뒤를 본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흙은 물을 받치고 있고 돌은 흙을 누르고 있다. 흙이 돌을 감싸고 있거나 돌이 흙을 받치고 있지 못한 돌과 흙은 저 아래로 떠밀려 굴러가 버렸다. 때때로 거울과 굴러간 햇지리에는 생채기가 나 있다. 내가 이웃과 함께 하면, 또 다른 이웃이 나와 함께 해 준다는 일상적인 가르침이다.

세상사 그러할 것이다. 사물을 대할 때에도 돌고 보면 내 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놓고 보면 그들 것 아닌 것이 없다. 그들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우기면 싸움이 난다. 싸움은 사실이든 아니든 해질게 되고 상처를 남긴다. 싸움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절교와 원망만 남는다.

무상 스님은 사물을 들고 보는 법이 없다. 모든 사물을 놓고 본다. 놓고 보는 편안함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림 것이라고 다독여 준다. 함께하면 기쁨이 넘치고 혼자하면 외롭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그러기에 스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안전한 질서가 있다. 사람이 그리운 날에는 무상 스님을 보러 가면 된다. 스님은 지금 하남시 광덕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가평 아가타 보원사 주지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산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 12월 3일 ~ 12월 18일 16일간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설법)-찬디가르-델리-인천

B팀 기간 : 12월 9일 ~ 12월 18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C팀 기간 : 12월 10일 ~ 12월 19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 출발일 :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탁실라-페샤와르-스왈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기슈카르-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 8월 20일 - 27일(4박 5일) 749,000원
- 8월 24일 - 31일(3박 4일) 699,000원

Silkroad (주) 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충빌딩 9층 (조계사 앞)



- 일시 : 2005년 12월 12일 - 12월 16일 (5일간)
- 장소 : 인도 티베트 망경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
-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 (전속스님 061-662-1607)